

새롭게 출발하는 달
신년 감사 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anuary 2,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지역과 행사 교독문 93번 - 새해 (1) 찬 송 / 301장 - 오 신실하신 주 (통일찬송 446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현신과 나눔	찬 송 / 536장 - 죄 짐에 눌린 사람은 (통일찬송 326장) 찬 송 / 540장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찬송 219장) 봉 헌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잠언 4:5-6 새해에 되새기는 삶의 지혜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찬송 456장)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빌립보서 2:5-11, 26-30

서로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 표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주제 말씀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위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 신년감사주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2022 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헌신과 섬김** 다음 주일(9)에 가질 **제직 서약**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더 충성합니다.
 - 정기 제직회/공동의회** 셋째주일(23)에 결산과 예산을 위해 가집니다.
 - 신년 특별 새벽기도** 1/1-8 & 1/11-15(화-금 6:00am, 토 7:00am)
기도와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생명줄입니다.
말씀묵상과 성경 1 독에 힘씁시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오전 11시)**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니다.
 -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1월 한달 예배 후 새해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니다.
- 1월의 사역 - 신년감사주일(2), 신년 특별 새벽기도(1/4-8, 1/11-15),
만남/나눔 주간(2-8), 제직서약(9), 성장/성숙 주간(9-15),
소금/빛 주간(16-22), 제직회/공동의회(23),
선교 주간(23-29), 선교주일(30)

♥ 1월 1주 ♥ 김영준(7) 이진아(8) 박강현(20) 정홍렬(21) 구민성(26) 최윤정(28) 유혜영(29)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2	1/9	1/16	1/23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구민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1/2	1/9	1/16	1/23
	오정은집사/박진성집사		최선윤집사/김훈태집사	
주일안내위원	1월			
	최내권 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지난 날을 되돌아 보니 “오직 주님만이”** / 미가 7:7-13, 18-20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었던 미가 선지자를 기억할 때이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를 고백하려면, 믿음과 영적 지식과 체험이 필요하다. 일곱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믿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체험. 이를 위해, 크고 작은 실수와 부지중의 죄 조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자. 2021년에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말씀묵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해야 한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감격한다. 2022년은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과 힘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새해를 시작하며 되새기는 삶의 지혜 / 잠언 3:5-6

새해와 인생의 승리를 위한 삶의 지혜는?

첫째, 여호와를 전심으로 신뢰하자.

둘째, 자신과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셋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자.

새해를 시작하며 되새기는 삶의 지혜 / 잠언 3:5-6

솔로몬의 경험을 담은 잠언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진실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나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들은 우상들을 들여 오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의 인생은 우리 삶의 교훈이 된다. 특히, 본문 말씀은 새해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치침이다.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권면한다. “--하라. 그리하면, --하리라.”는 문장 형식으로, 명령과 순종의 결과를 설명한다. 여기서 명령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3개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인생을 지도하신다는 것이다.

첫째,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함은 전적인 의지를 말한다. 완전한 의탁과 의뢰의 상태이다. 즉,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다. 태아가 탯줄을, 암벽 등반가가 로프에 의지하듯 생명을 붙잡지 않고 끊어지면 인생이 끝장난다. 새해와 남은 인생을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자.

둘째,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즉 선악의 분별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소유격 “네”는 하나님 경외를 배제한 인본주의 교육과 지식을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다. 하와의 범죄도 세상의 명철에 혹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 발생했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기준과 다를 때가 허다하다. 나와 세상의 지식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새해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셋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연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가. 아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삶을 직접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자신을 낮추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눈 앞의 이익을 의지할 때 시작은 좋을지 모르나 끝이 좋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깊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순풍을 만난 것 같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 영적으로 잠 들어 하나님을 잊고 살면,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멀리 돌아간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해로 만들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매일의 창조 후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탄이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더 특별한 형용사를 붙이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날과 구별되는 더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스펀 3:17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겉으로는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눈을 하나님 눈으로 바꿔야 한다. 좋은 눈과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만물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한 돈을 생각해보자. 사람이 돈에 지배를 당한다. 인간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 다스림을 받는다. 주인이 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격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한다.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조종한다. 만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상태가 바로 타락한 상태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온다.

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가?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내 존재 가치가 가장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 사 43:7

이것을 모를 때 오로지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 학위를 따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한다. 이것은 아주 잠깐 동안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일 뿐이다. 조금 지나면 다시 존재 의미가 상실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그 존재 의미가 채워지지 않게끔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는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자기 비전에 몰입하다보면 불행하게 된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자살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돈으로만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해보자. 정은수, 『하마성경(창세기)』

신년 계획 꿀팁

1. 제일 중요한 계획은 매일 주님 만나기
2. 새해의 기도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작성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주세요.



2022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1. 00 하기
2. 00 하기
3. 00 하기

음... 그런데 왜... 잔뜩 나의 계획을 세우지만, 12월에 가서 후회가 가득할까요? 그러면,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조지물러는 이렇게 하셨대요.

무작정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이 기도하면, 모든 생각이 주님 생각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요. 분별이 안되니까요.) 먼저 성경을 충분히 읽으며 '주님, 제가 하고자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읽다가 마음에 쿵하고 들어오는 말씀,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 수첩에 써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놀랍게 이루셨다고 해요.

2022년, 계획도 좋지만, 어딜가든 예배를 먼저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보며 먼저, 주님 마음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계획을 적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마음 주시는대로 추가하거나, 지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요.

2022년, 기억하세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주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해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친밀히 알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새해 되게 하소서. 2022년 한 해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네 기근야와 함께 기근이 임하고...”

시편 37:5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